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0호 【루게 제24918호】 주제104(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  
저희들은 조선어와 로어교육자, 전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높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로조선학술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서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는바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로씨야연방 대학에서의 조선어 및 로씨야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토론회는 로어와 조선어교육과 연구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키며 로모노소프명칭 모스크바립종합대학과 원동지방종합대학을 비롯한 로씨야의 여러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교류와 친선협조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의의깊은 회합이었습니다.  
우리는 로씨야의 조선어교육자, 전문가들이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 로어교육자, 전문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친선의 늬해와 정을 두터이화해서 로어와 조선어교육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호상 교환하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뜻깊은 학술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다함없는 호의를 표합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이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하여 분투하고있고 로씨야인민이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로조선의 해인 올해에 로씨야의 여러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이 로어와 조선어교육발전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토론회를 통하여 앞으로 로어와 조선어교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간것으로써 로조선관계발전과 로씨야의 여러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에 적

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로씨야의 여러 대학 조선어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일성국방위령장각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힘을 얻었으며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굳게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로씨야의 여러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 사이에서 학술교류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것이 오랜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있는 로씨야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두 나라 대학들사이의 친선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학술교류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로씨야의 여러 대학들과 김일성종합대학사이의 친선적인 협조와 교류의 활력있는 확대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로조선학술토론회에 참가한  
로씨야의 여러 대학 대표일동  
2015년 5월 19일 평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양어장주내에 있는 철강공업발전기업을 비롯한 여러 양어장들을 돌아보셨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어주신 양어장의 불세출의 불길로 세차게 타변지해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양어장의 일꾼들,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VOA방송, 도이쉴란드단체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에zell트르의 수습계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체종합시험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도이쉴란드단체연단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이 오랜기간 온갖 수단과방법을 다하여 사회주의조선을 붕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으나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조선이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만이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안고서 사회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부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그를 전민적으로 구현하시어 조선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평도자와 첨단군민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어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특은한 자립경제, 세계적인 대중문화생활기구를 갖춘 사회주의문명국으로 건

##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대교조전역

미래 과학자거리 2단계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변영기를 향해이며 사회주의문명을 뚜렷이 파시하게 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현대성을 함께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높이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법비적기술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단계에 이어 2단계건설이 시작된 데로부터 한달 남짓한 기간 살림집건설을 맡은 모든 단위들에서 방대한 건물기초공사를 끝내고 지상골조공사를 힘있게 다스리고있다.  
건설장에서는 초기초공크리트 기둥이 3단m가 훨씬 넘는 고층이 초고층살림집들의 기초공사기 전부 결속됨으로써 앞으로의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특은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살림집골조공사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건설장에서 일부 시공단위들은 벌써 10층계선을 돌파한 기세로 살림집공사를 힘있게 높여나가고있다. 한편 살림집건설을 맡은 단위들이 뒤질새라 공공건물건설과 기존건설에서 건보공사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현대적인 학교와 유치원, 병

원을 비롯한 10여종의 새 건물기초공사와 보수건물복합미장공사를 나날이 확대하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외한하게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기에 위한 정성으로 애국사열이며 거창한 대건설전투이다.  
우리 당이 교육자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미래과학자거리의 후부지면적은 대단히 넓다. 대동강기슭에 새로 일떠서는 거리의 양안에는 25층, 30층, 40층, 50층이상의 육용식살림집들과 주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건물기단층들에 다양한 봉사당들을 배치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살림집건물들과 어울리게 거리와 주택지대를 원형을 조성하고 휴식과 편을 배합할수 있는 이채로운 환경을 비롯하여 문화사 및 문화회생시설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하게 된다.  
지난 1단계건설기간 대동강호안을 따라 일떠선 초고층건물들과 초화를 이루게 될 2단계건설대상들이 완공되면 미래과학자거리의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하여 변모될것이다.  
나라의 과학 발달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게 하는

### 유아원, 애육원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

평안북도에서 유아원과 애육원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유아원과 애육원건설을 다그쳐 당창건 일흔둘까지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일꾼들은 일정에 계획을 높이 세우고 물력대원들이 공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도당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황해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유아원, 애육원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유아원, 애육원건설에 헌신할같이 펼쳐나서도록 조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여러 단위의 건설현장으로 유아원, 애육원건설을 내밀도록 조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따르세우

###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유아원과 애육원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유아원과 애육원건설을 다그쳐 당창건 일흔둘까지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장지휘부일꾼들은 일정에 계획을 높이 세우고 물력대원들이 공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도당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 황해도에서

황해도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유아원, 애육원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유아원, 애육원건설에 헌신할같이 펼쳐나서도록 조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여러 단위의 건설현장으로 유아원, 애육원건설을 내밀도록 조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따르세우

## 강냉이심기를 끝낸 기세로 강원도 의 협동농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에서 물적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불사를 위한 만도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도 물질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에 제시된 과업판에 명철한 강인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냉이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알곡생산성으로 넘내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강냉이심기를 모태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

합동청년전기공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일한강계단건설건설장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을 계획보다 다섯달이상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연이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금속공업부문 현대화공장에 보내준 대상설비생산에 달라붙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땀땀이 들어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장단위위원회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금속공업부문 현대화공장에 보내준 대상설비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위원회 일꾼들은 전투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청년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를 앞당겨 생산한 기세를 높이기 위해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도록 대중을 고무추동하여 화신시켰고, 화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 대상설비생산에 계속 박차를

합동청년전기공공장에서  
기사장 김홍갑, 부기사장 강동식등을 비롯한 함모부의 일꾼들은 생산자대중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장의장발상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기술혁신,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주고 있다.  
4.15기술혁신투쟁대의 물적대원들은 지령조종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많은 노력과 자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준데 앞장서고있다. 소재준비직장에서는 중주파유도로의 맹개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로의 정상운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청년조작기공작과 부원합작장에서 새로운 지구, 장비를 받아들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소재준비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복잡한 주물

## 강냉이심기를 끝낸 기세로 강원도 의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심기를 끝낸 기세로 강원도 의 협동농장들에서  
합동청년전기공공장에서  
기사장 김홍갑, 부기사장 강동식등을 비롯한 함모부의 일꾼들은 생산자대중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장의장발상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기술혁신,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주고 있다.  
4.15기술혁신투쟁대의 물적대원들은 지령조종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많은 노력과 자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준데 앞장서고있다. 소재준비직장에서는 중주파유도로의 맹개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로의 정상운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청년조작기공작과 부원합작장에서 새로운 지구, 장비를 받아들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소재준비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복잡한 주물





# 천만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분출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으로 당을 따라 끝까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시대의 폭풍을 몰아오며 한편의 노래가 울린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버려주는 혁명의 전구...

왔으니 그속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산, 사시장철 흰눈이 덮여있어 백옥을 닮아세운 듯 한 봉우리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고 단일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도 백두산에 근원을 두고있다.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마음의 기둥으로 떠받들었던 바로 백두산이다.

백두산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든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총성을 올리신 그때부터이다. 백두의 협축한 산밭을 주름잡으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성취하신 김일성장군님, 그이름 백두산의 위대한 영웅, 절세의 애국자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책임지로 찬연한 빛을 뿌리였으니 백두산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원수들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했던 지난해 3월에도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었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조국의 하늘을 지켜신 전두포행사를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신다는 어떤 깊은 뜻이 새겨져있는가.

백두명장의 웨침이 삼천리에 메아리쳤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귀중한 정신적장식을 새겨안는 길, 백두의 혁명정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령님집 조선혁명의 명맥을 뜻이 이어가는 길!

그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력사의 통과를 백두의 칼바람으로 쳐잡고 조국해방업무를 빛내세우며 백두산의 영웅을 따라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백두산에 올라다. 동성의 평범한 신남공처녀가 노래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은 오로라는 불같은 지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우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업무를

민족의 넋이 깃들여있고 선군조종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역시 우리 인민은 백두산에 마음을 얹고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왔고 오늘 또다시 백두산칼바람에 혁명의지를 가다듬으며 혁명적,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입니다.》

조선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애국의 넋이 깃든 백두산은 아름답고 정제하고 승엄한 모습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 세계의 명산으로 통성고이고 널리 알려져있다. 력사의 오랜 세월속에 백두산은 그 이름도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백산, 장백산 등으로 불리워

왔으니 그속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산, 사시장철 흰눈이 덮여있어 백옥을 닮아세운 듯 한 봉우리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고 단일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도 백두산에 근원을 두고있다.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마음의 기둥으로 떠받들었던 바로 백두산이다.

원수들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했던 지난해 3월에도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었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조국의 하늘을 지켜신 전두포행사를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신다는 어떤 깊은 뜻이 새겨져있는가.

백두명장의 웨침이 삼천리에 메아리쳤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귀중한 정신적장식을 새겨안는 길, 백두의 혁명정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령님집 조선혁명의 명맥을 뜻이 이어가는 길!

그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력사의 통과를 백두의 칼바람으로 쳐잡고 조국해방업무를 빛내세우며 백두산의 영웅을 따라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백두산에 올라다. 동성의 평범한 신남공처녀가 노래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은 오로라는 불같은 지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우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업무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입니다.》

조선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애국의 넋이 깃든 백두산은 아름답고 정제하고 승엄한 모습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 세계의 명산으로 통성고이고 널리 알려져있다. 력사의 오랜 세월속에 백두산은 그 이름도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백산, 장백산 등으로 불리워

왔으니 그속에는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산, 사시장철 흰눈이 덮여있어 백옥을 닮아세운 듯 한 봉우리 등 여러가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고 단일민족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도 백두산에 근원을 두고있다.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마음의 기둥으로 떠받들었던 바로 백두산이다.

원수들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했던 지난해 3월에도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었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 또다시 조국의 하늘을 지켜신 전두포행사를 백두산으로 불러주시신다는 어떤 깊은 뜻이 새겨져있는가.

백두명장의 웨침이 삼천리에 메아리쳤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귀중한 정신적장식을 새겨안는 길, 백두의 혁명정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령님집 조선혁명의 명맥을 뜻이 이어가는 길!

그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력사의 통과를 백두의 칼바람으로 쳐잡고 조국해방업무를 빛내세우며 백두산의 영웅을 따라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백두산에 올라다. 동성의 평범한 신남공처녀가 노래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은 오로라는 불같은 지향,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우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업무를

### 후대들에게 보여주리 청춘의 자서전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맡아 돌보아야 할 처지이다.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펼쳐야 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가 자랑하는 수많은 지휘관들 가운데는 25살의 청년대장도 있다. 그가 바로 자강도려단 4대대장 김은경동무이다.

지난해 2월 대대에 도착한 김은경동무를 보고 동맹대원들 누구나 수군수군하며 머리를 기울여주었다. 《우리 대대에 청년대장이 오다니?!》

《조선이 제일 어려운 대대에 합류되면 치네...》

《말 말라구. 그만큼 어려우니 처녀를 보냈겠지. 대대생활을 잘 돌보라구 말일세.》

김은경동무는 동맹대원들의 우려가 공언한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직접 자기의 눈으로 대대현황을 료해하고나서 추를 달아놓은듯 마음이 무거워왔다.

날이 설날까지도 김은경동무는 잠자리에 들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대대장자임을 제대로 해볼수 있을까?)

불현듯 울음은 련단장의 목소리가 되버렸다.

《동무에게 제일 무거운 짐을 지우는구만. 하지만 우린 은경동무를 믿소.》

려단장의 미더운 눈길을 그려보자 가슴에 그들처럼 차오르는 뜨거움이 있었다.

사실 그의 대대장임명문제를 두고 의견장이 없지 않았다. 결코 련단장이 추천한 은경동무의 됬됨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누구나 4대대의 실정을 모르지 않았고 그래서 처녀의 두어개우에 지을 막중한 무게가 모두의 마음속에는 더 무겁게 못혀있었던것이다.

《그에게 대대장직무를 맡겨주시다. 짐이 클수록 인내성과 용기는 더 커지는 법이 아니랴. 은경동무도 온실안의 꽃이 아니라 백두산의 만병초처럼 키워줍시다.》

《우리 대대의 만병초처럼! 백두산칼바람소리까지 감수 견뎌서 소치고 사나운 눈보라가 눈앞에서 소용돌이치는것만 같잖아. 멀리 이데이션가 류향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아흐러운 총성, 쿵쿵자지러지게 울리는 총소리, 총소리... 혈전을 벌리며 눈보라속을 뚫고나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대오, 끝없이 전진하는 대오!》

은경은 그속에 선 자기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그때, 내가 한다. 항일의 투사들처럼, 백두산의 만병초처럼 군세!)

이런 결심을 굳힌 청년대대장이기에 대대생활을 맡은 김은경동무는 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함으로 무겁다.

우리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승인과 고학의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였다.

북청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리 경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할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에게는 청춘, 신념, 백두산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청춘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제 2차 전국청년미공선군자대회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 정영사리단 대원인 박정금동무의 토론을 듣고서이다.

### 칼바람속의 청춘

청춘도 영원하고 죽어도 영생한다고. 그런 사람들속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도 있다. 암흑속을 벗어나 태양이 눈부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던 날 리인모동지는 통일각에서 한없이 경건한 심정에 잠겨《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그가 온몸의 기력을 모아서 한 이 말은 최악의 역경속에서 전사의 신념과 의지를 불변의것으로 버려준 힘과 그 헌신이 파연 무엇이였는가를 진리다 납득시켜주고있다.

둘이켜보면 리인모동지의 한생은 백두산과 이어진 값높은 한생이었다.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반일의 불꽃을 키우던 해방전의 그날부터 그는 백두산을 방향의 등대로 바라보고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을 세웠고 34년동안 피맺힌 육공고초를 겪던 나날에도 그는 백두산을 한시도 잊어본적 없었다. 차디찬 깃방에서 진달래꽃을 피우며 마음속에 우뚝이 떠오른 백두산을 시구절에 담기도 했었다. 하기에 옥중에서 출간된 30여년의 날들은 그의 머리에 백발을 없애 주었지만 한강도록 백두산을 안고 산 그에게 어머니조국은 영원한 청춘을 안겨주고있고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빛나는 가장 창피고 승고한 삶도 안겨주었던 것이다.

영원한 청춘, 사람의 한생에 시 청춘은 한시절이다. 허나 자를 잃어 줄수 없는 영원한 청춘을 안겨주는 곳이 있다. 백두산이다. 백두산에 오르면 10년도 1년으로 젊어지게 하는 혁명열, 투쟁열을 안게 되고 백두산칼바람을 맞으면 조국과 혁명앞에 지진 사망해도 더 자각하게 되며 언제나 젊음을 넘쳐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참된 혁명,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자리하게 된다.

그렇다. 백두의 칼바람속에 영원한 청춘이 있다. 그 어떤 정신적로피와 육체적로피도 모르게 하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게 하는 백두산칼바람, 그속에 천만군민이 청춘에 살고 조국이 더 젊어진다. 백두산으로 오르자, 백두산칼바람을 안고 살자. 백두까지 스미는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기 위하여! **본사기자 오은별**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추억, 불라는 맹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정열을 일으켜 조선속도 창조해 낼수 있게 하리라!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지난 3월에 진행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전국행정적일군들의 답사행군은 혁명의 지휘관들이 우리들이 백두의 혁명정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을 함께 하며 단란을 뚫고나가는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조로친선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나라 광철선수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 우리 나라 광철선수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우리 나라의 광철선수가 핀스뜨린 꼬르프코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회 참가 대표단 도착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회에 참가해 미국, 스웨리예, 짐바브웨, 캐나다, 필리핀, 폴란드, 영국, 오스트랄리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과 해외

# 식민지하수인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와 굴종

시대는 달라지고 역사는 멀리 전전하  
 었지만 남조선은 아직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피로당  
 국자들은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여 그  
 게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으면서 《정  
 권》을 유지해가는것으로 하여 온갖 지  
 역을 뒤집어쓰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문항이 보여  
 주다싶이 미국이 제정을 시도하는 일본의  
 군사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여 미  
 국상정만 쳐다보면 피로당은 외교적으로  
 빠져 어떻게볼까 몰라하고있다.

미국이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추구하  
 며 아시아지역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  
 고이러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에 대해  
 반발해나서면서 그 째에 끼은 피로당들  
 《균형외교》는 만신의교로 전락되고 그  
 로 하여 역적당국은 외교적무능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그야말  
 로 동태복신제가 되고있다. 하지만 그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것도 못한다. 피로  
 당이 처한 기강한 신세는 자주권이 없  
 는 식민지하수인들에게 차례질 응당한  
 귀결이며 통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에 의  
 존하는 사대매국노들의 피할수 없는 운  
 명이다.

남조선피로당의 대외정책은 철저한 외  
 세추종정책, 외세를 등에 업고 통족을 해  
 치기 위한 매국반역정책이다.  
 역대로 피로당적분들은 미국을 상전으  
 로 삼고 미국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고리 팔아왔다. 특히 현 피로당집권세력  
 의 친미파대국공부는 절정이라고 할수  
 없다.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에 대해  
 부끄러움도 모르고 《강성 공명동맹  
 동맹》, 《동맹 동맹》, 《핵심축》으로  
 피어올리며 그것을 미국의 침략적인  
 내외적합선에 전적으로 복종시킴이것이  
 친미파대국공부란 현 피로당적분들의  
 비굴한 추태이다. 피로당들이 《대북정  
 책》을 들고나온 《신외교노선》라  
 는것도 사실상 미국의 대조선외교노선  
 을 본연정이다. 미국이 저들에 대한 맹  
 목적인 추종과 아무굴종으로 전명을 부  
 시기도 마음편히 살수 없는것이다.

**악명 떨치는 파쇼 독재자**  
 남조선의 박근혜  
 는 선입독재 《정권》들  
 을 무색케 하는 파쇼독  
 압집단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의 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  
 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피로당의 반인  
 륜적행위가 이를 낱말이  
 고발하고있다.  
 박근혜당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  
 까지 벌어진 각계층의  
 집회와 시위투쟁현장에  
 방대한 경찰병력을 내  
 몰아 물대포와 최루액  
 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하여 리명박적분들의  
 집결지를 인 2010년  
 초, 최고기록을 썼다.  
 5. 1절을 앞두고 서울  
 에서 온 20만명에 달  
 하는 노동자들이 《세월  
 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  
 한 각계층 중층이 《끝  
 내자 박근혜》 등의 투  
 향호를 내걸고 거센찬  
 항의투쟁을 전개하였  
 다. 청와대를 향한 시위  
 대오가 종로구 안국동  
 내거리에서 피로당  
 경찰은 물대포를 중중  
 을 향해 마구 사격을 가하였  
 는데 그때 뿔어진 액제방은 무  
 려 4번에 달하였다.  
 이 때 앞서 4월 18일 《세  
 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때에도 피로  
 당경찰은 무려 3만 3 200명의  
 물대포를 쏘아댔다 한다.  
 뿐만아니라 서울의 곳곳에서  
 전개된 대규모투쟁장소에서  
 도 이러한 단면은 계속되었다.  
 2010년이후 물대포사용에서  
 가장 많은것은 2011년 11월  
 22일의 2만 4 800이라는 사  
 용을 놓고볼 때 현 피로당국의 폭  
 압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대포의 사용량만큼 최루액  
 의 사용량도 늘어났다.  
 는 남남당에 차인치는 반박근  
 해합성을 억누를 목적으로 피로  
 당정권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강  
 한 독성물질인 최루액을 물대포  
 에 섞어 무차별적으로 사용  
 하여 리명박적분들의  
 4월 11일과 16일, 18일에 사용  
 한 최루액만도 무려 5000에 달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로당  
 은 5차례에 걸쳐서 시위대 모두  
 720L의 최루액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총사용량의  
 3. 7배에 해당하며 특히 18일  
 하루동안에 사용된 량은 지난해  
 총사용량의 2. 5배에 이른다.  
 현 《정권》에서의 최루액 사  
 용은 이번엔 갑자기 증가된것이  
 아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1일부터 2013년 현재  
 동안의 최루액 사용량은 약  
 4850리터로 2010년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2011년보다  
 2배이상에 달한다.  
 물대포와 최루액사용량이 리  
 명박적분들의 눈을 훨씬 통과하  
 고 있는 현실은 현 피로당국의 야  
 만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자주, 민주, 통일의 함성을 짓  
 누르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액의  
 무차별적 사용으로 악명떨친  
 《유신》독재자의 파쇼독재가  
 그 후배와 잔당들에 의해 오를  
 날 그대로 되풀이되고있다.  
 파쇼독압에 명줄을 건 현 피  
 로당집권자야말로 인권의왕의  
 왕 초이다.  
 【조선중앙통신】

지해가는 피로당국을 하수인으로, 노복  
 으로 부러먹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  
 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을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피로당의 사대매국적근성은 외세의  
 외력에 계속 매달리며 그의 힘을 빌려  
 통족을 해치기 위해 미쳐날뛰는것을 통  
 하여서도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피로당은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미제침략군의 영구강  
 계를 애걸하고있는가 하면 이미 미국으로  
 부터 돌려받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도 받지 않았고도 나자빠지면서 나중에는  
 미국의 고고도격묘미사일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회색하는 쓸개  
 찌진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이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것으로  
 조선반도를 미국상전의 핵전쟁터로 서  
 술없이 내맡기고 민족의 머리로 해낸  
 을 몰아오는 극악한 매국역적행위라는  
 것은 뒤말할 필요도 없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민족의 리익  
 을 해치며 조선반도와 동부아시아지역  
 국가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피로당노  
 선의 추악한 정체는 그 무엇보다도 가  
 리울수 없다.  
 남조선피로당국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역사문제  
 의 안보문제》의 분리대응》을 떠들며 일  
 본민족들과 군사적으로 공공연히 결탁  
 하고있다. 일본민족들이 과거의 침략사  
 를 부정하며 독도강탈행동에 과인이 되  
 어 날뛰는데도 피로당들이 그에 대해 논  
 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보교류제공  
 등 통족을 겨냥한 군사적합력을 강화  
 하는것은 그 대표적실제이다.  
 통족을 해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백년  
 숙적과도 거리가있없이 일을 맞추며 그  
 의 부친전쟁공조에 피니되어 날뛰는  
 이번 가증스러운 매국노들때문에 남  
 조선 인민의 수리와 모욕을 당하고 조  
 선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며 우리 인  
 민들이 한숨을 쉬고있다.

현 피로당정권은 찍히던 자기  
 《정권》의 그 무슨 《도덕성》  
 에 대해 떠들어댄다. 하지만 전  
 현 피로당부총리, 청와대의 전, 현  
 직 비서실장 등 핵심직군 8명  
 의 부정부패행위를 역인정 선한  
 부장, 직능총괄부서장, 당부  
 《도덕성》간판은 명바닥에 완전히  
 처참하고말았다.  
 《정권》의 그 무슨 《도덕성》  
 에 대해 떠들어댄다. 하지만 전  
 현 피로당부총리, 청와대의 전, 현  
 직 비서실장 등 핵심직군 8명  
 의 부정부패행위를 역인정 선한  
 부장, 직능총괄부서장, 당부  
 《도덕성》간판은 명바닥에 완전히  
 처참하고말았다.  
 《정권》의 그 무슨 《도덕성》  
 에 대해 떠들어댄다. 하지만 전  
 현 피로당부총리, 청와대의 전, 현  
 직 비서실장 등 핵심직군 8명  
 의 부정부패행위를 역인정 선한  
 부장, 직능총괄부서장, 당부  
 《도덕성》간판은 명바닥에 완전히  
 처참하고말았다.



피로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 초엽 미일협  
 조의자들이 《가짜-라프트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제가 미국의  
 비밀에 우리 나라의 국권을 짓밟고 전  
 대미문의 식민지탄압을 감행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그 협정은 일제  
 가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  
 인정하고 그 대가로 미제는 일제의 조  
 신침략에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미  
 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 밀약되어있었다. 당시 주변나라  
 들을 쳐다보며 국민들이 눈치챌지 못  
 한데도 미국과 공조협력하여 달렸던  
 일제의 침략자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피  
 할수 없었다.

그때의 피눈물나는 역사가 오늘 남  
 조선에서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  
 어 사대매국에 미쳐들아가는 피로당  
 에 대해 재현되고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피로당을 떠돌고  
 일본과의 밀착합력을 강화하면서 《방  
 위협력지침》을 새로 개정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을 두고 내외어른들이  
 《제2의 가짜-라프트협정》, 《세로  
 운 맹정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평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  
 이 새로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유선시 일본 《고위대》 무력이 미군  
 수지원을 명목으로 제 마음대로 남  
 조선에 침략할 발을 들여놓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호시탐탐 제정의 기  
 회를 노리는 일본민족들과 박근혜  
 통족을 연립시켜 3각군사동맹에 단  
 없이애써놓음으로써 부친전쟁을 실  
 현하고 조선반도와 동부아시아지역  
 의 안정을 해치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계산이다.  
 미국은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  
 의 침략정책을 로골적으로 부정하며  
 독도강탈에 적극 나서고있는 현 일본  
 적분들의 두둔해나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보수패당은 저들  
 만 알고있는 사실을 누가 알  
 라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흥문  
 중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황망무계한 소설》이라는,  
 단은 1원이래도 만났으면 《정  
 계을위》를 그랬다느니 하며 제  
 편에서 큰소리치며 지고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만  
 이다. 성안중은 논픽션만 한  
 리도 없이 은혜를 원수로 삼  
 는 현 집권자와 《세누리당》  
 패거리들을 부수하기 위해 저들의  
 길을 택한 사람이다. 그는 목숨  
 을 팔기 전에 《경향신문》 기  
 자와의 통화를 통해 대화내용을  
 목숨하고 세상에 폭 알려달라고  
 수차례에 당부했었지만 자기  
 정치인들에게 준 비밀자금의 조  
 성경위와 전달방법, 자기 주장을  
 폄하하는 증거물들을 은밀하  
 게 보관시켰다. 남조선인들은  
 의 책임은 빈곤  
 에 시달리는 사  
 회적위계층을  
 으면하는 보수  
 당에 있다고  
 하면서 특권층만  
 있는 민권  
 정책을 전면적  
 으로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하  
 고있다. 하지만  
 인민들의 생존  
 권을 위협하는  
 안중에도 없  
 는데도 피로당  
 패당에게는  
 그들의 절규가  
 소리에 경이  
 닮아있다.  
 이 얼마나 몰서  
 치는 인간생  
 지육이다.  
 그와 반면에  
 우리 나라에  
 서는 인민대중  
 의 자주적권리  
 가 완벽하게  
 보장되고있다.  
 우리 공화  
 국은 이 세상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  
 의 사회주의  
 나라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  
 구나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물로  
 통할 권리, 교육  
 과 의료부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  
 적권리를 물로  
 받으며 할 모든  
 권리를 전면적  
 으로 보장받고  
 있다. 우리 공  
 화국 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  
 의 행복의 요  
 람, 인권의 대  
 화현이다.  
 그런데 제일  
 큰 두려움은  
 모르고 거울만  
 나무라고 남  
 조선 세계적  
 의 인민권리  
 전락시키고  
 인민들의 조  
 보적인 생존  
 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는  
 피로당에게  
 참칭인굴은  
 못본척하고  
 그 누구의 《인  
 권》이 없  
 지 않게 하며  
 반공 반북 반  
 동북대륙사  
 동에 광복을  
 하는것이  
 야말로 까  
 마귀가 백  
 로를 훔치는  
 거울로  
 화가 아닐  
 수 없다.  
 본사기자 라  
 설 하

1월 1일 미중앙정보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통해 《일본해》로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일본민족들의  
 독도강탈 행위에 기입하는 망종이다.  
 그후 2월에  
 도 미국무성 차관이라는자가 일본  
 을 공개적으로 편들었다.  
 문제는 그에 대해 쪽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남조선피로당의 굴욕적인  
 자세이다.  
 피로당국은 저들을 무시하는  
 상전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 무슨  
 《주권존중》이니, 《통의》니 하며  
 허무맹랑한 꾸밈  
 을 늘어놓고있다. 그야말로  
 열변을 지어내지 못하는  
 개미와 개미가 되어 버렸다.  
 련대도 침략자를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누구에게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  
 하물며 초보적인 자주권에  
 속하는 군사 주권마저  
 넘겨버린 피로당은 그 무슨  
 《주권존중》나발을  
 오만하 미국이 귀  
 으나 다를것 같은가.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머저리가 되는 법이다.  
 미국과의 예속통행의  
 끝메를 쓰고 주 대  
 없이 늘어다가 대외적으로  
 개고망신 당하고 외  
 도리신세로 굴러떨어  
 진 피로당국자들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다.  
 피로당은 지금 그 누구의  
 《협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  
 며서 언론의 판대로  
 둘러싸고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  
 절없는것이다. 피로  
 당이 일본의 과거  
 침략자를 밀어주고  
 제정의 길로  
 접두 때 미는 미국에  
 향배 한미도  
 의 뜻을 자제에 도  
 리며 민족의 자주  
 권을 옹호하기 위  
 한 우리의 정의로  
 는 핵억제력에 대  
 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위협》이  
 니, 《도발》이니 하  
 고지고도 미국  
 반역에 열을 올리  
 는것은 실로 언어  
 도단아 아닐수  
 없다.  
 피로당은 사대매국  
 통족에게에 환장  
 하여 미쳐날뛰기  
 서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  
 내며 민족의 리익  
 을 팔아먹는 반역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피로당국  
 들은 남조선피로  
 당의 야수적탄압  
 에 맞서 고통받고  
 있다.  
 피로당국자들은  
 저들의 반역행위  
 에 맞서 고통받고  
 있다.  
 피로당국자들은  
 저들의 반역행위  
 에 맞서 고통받고  
 있다.

부정협잡선거로 조작된 불법 《정권》  
 성안중이 죽기 전에 또다  
 치명적인 《비밀주거》를  
 준비해두었다고 보도  
 하였다.  
 비록 성안중은 죽었지만  
 그가 폭로한자들의 부  
 정부패행위는 언뜻  
 언뜻이기는 만  
 드러나고야 말  
 않겠다.  
 남조선인들은  
 성안중사건이  
 성안중사건의  
 기본초점은  
 《대통령》 선거자  
 금문제에  
 다 집중되고있다.  
 보도진과 같이  
 성안중은 죽  
 기를전날에 자  
 기의 수검인들  
 에게 지난 2012  
 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  
 집역원을 《세  
 누리당》에 선  
 거자금을 바  
 차했다고 말하  
 였다. 그는 《경  
 향신문》 기자  
 와의 통화에서  
 《세누리당》  
 소속 의원인  
 흥문중에게 2  
 억원을 전달했  
 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들  
 은 《흥문중 2  
 억, 류정복 3  
 억, 부산시장 2  
 억》이라고 쓴  
 글짜를 남겼다.  
 흥문중의 권좌  
 부정부패는 2012  
 년에 시작됐다.  
 2012년 1월, 전  
 현 피로당부총  
 리, 청와대의 전  
 직 비서실장 등  
 핵심직군 8명  
 의 부정부패행  
 위를 역인정 선  
 한 부장, 직능  
 총괄부서장, 당  
 부 《도덕성》간  
 판은 명바닥에  
 완전히 처참하  
 고말았다.  
 《정권》의 그  
 무슨 《도덕성》  
 에 대해 떠들어  
 댄다. 하지만 전  
 현 피로당부총  
 리, 청와대의 전  
 직 비서실장 등  
 핵심직군 8명  
 의 부정부패행  
 위를 역인정 선  
 한 부장, 직능  
 총괄부서장, 당  
 부 《도덕성》간  
 판은 명바닥에  
 완전히 처참하  
 고말았다.

#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국제사회계에서 울려나오는  
 연대성의 목소리  
 자주, 민주를 지향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념  
 원은 정의와 진리를 바라는 세  
 계 진보적인민들의 동정과 지지  
 를 불러일으키고있다.  
 1980년 5월 남조선의 광우  
 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미제  
 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조  
 통치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  
 킨데 대해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재사우연구소공동성  
 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광우인민봉기는 미국의 식  
 민지통치에 반대하고 사회적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  
 하여 일면 남조선인민들의 대  
 중적인 무장봉기였다.  
 피어린 광우인민봉기는 비  
 록 실패하였지만 미제와 남조선  
 피로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  
 민들의 투쟁의 한 발만으로 영  
 험히 기억될 것이다.  
 광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스위스단체들뿐만아니라 광  
 우인민봉기를 지지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의 사  
 상적으로, 부패하고 파조  
 《정권》과 미제에 대한 썩  
 고썩인 분노의 폭발로 평가하  
 고있다. 그러나 전 반인민적  
 투쟁에 치유를 덧씌우는 현  
 《정권》을 규탄하며 외세를  
 몰아내라 민족통일을 실현하  
 기 위해 싸우는 남조선인민  
 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  
 하였다.  
 영국조선위원회 성명은 다  
 음과 같이 밝혔다.  
 광우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  
 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민  
 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광우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  
 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남조선의 광우  
 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미제  
 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조  
 통치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  
 킨데 대해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재사우연구소공동성  
 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광우인민봉기는 미국의 식  
 민지통치에 반대하고 사회적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  
 하여 일면 남조선인민들의 대  
 중적인 무장봉기였다.  
 피어린 광우인민봉기는 비  
 록 실패하였지만 미제와 남조선  
 피로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  
 민들의 투쟁의 한 발만으로 영  
 험히 기억될 것이다.  
 광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스위스단체들뿐만아니라 광  
 우인민봉기를 지지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의 사  
 상적으로, 부패하고 파조  
 《정권》과 미제에 대한 썩  
 고썩인 분노의 폭발로 평가하  
 고있다. 그러나 전 반인민적  
 투쟁에 치유를 덧씌우는 현  
 《정권》을 규탄하며 외세를  
 몰아내라 민족통일을 실현하  
 기 위해 싸우는 남조선인민  
 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  
 하였다.  
 영국조선위원회 성명은 다  
 음과 같이 밝혔다.  
 광우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  
 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광우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  
 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으며 브라질신문 《오라 도  
 보》는 《세월》호 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이거나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호 참사로서 반 《정부》투  
 쟁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울분, 저 주  
 하에 달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반 《정부》투  
 쟁이 계속되고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광우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  
 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  
 국에 대한 피로당국의 반인  
 민적행위와 같이 반자주, 반  
 민주, 반통일 투쟁사에  
 방자한 한계를 기록하며  
 광우의 항쟁투쟁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인권의 황량한 무덤, 슬막히는 독재사외 (6)

**반역정책이 빚어낸 세계최악의 자살지옥**  
 부산을 피우지 만 소용없다. 자  
 살자수는 줄어들지는 않았  
 으며, 해고자들이 늘어만  
 나고있다. 올해에도 남  
 조선에서는 설  
 명절에조차 자살하는 사  
 람이 너무 많아 경찰은 미  
 치지 못한 자살사건이 수  
 천건에 달하고 있다. 자살  
 사건의 수가 늘어남은 자  
 살자수의 증가는 물론이  
 라, 사후처리도 못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사  
 건이 계속되고 있다. 자  
 살사건의 수가 늘어남은  
 자살자수의 증가는 물론이  
 라, 사후처리도 못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사  
 건이 계속되고 있다.

자살사건의 수가 늘어남은  
 자살자수의 증가는 물론이  
 라, 사후처리도 못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사  
 건이 계속되고 있다. 자  
 살사건의 수가 늘어남은  
 자살자수의 증가는 물론이  
 라, 사후처리도 못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사  
 건이 계속되고 있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4  
 일 《총련인민들의 대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도한  
 반인륜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에는 남조선의 인  
 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에는 남조선의 인  
 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는 나라

# 범죄의 증거물은 문화유산이 될수 없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며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부러워하며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은 가는 가마다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창조물들모두가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건설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교육제에 높은 수준의 발전하고있고 하면서 우루파이신문 《라 푸엔투》는 평양산원 유년중앙연구소, 육류 이동병원 등이 일떠서 전문적인 의료봉사망이 더욱 훌륭히 갖추어졌으며 각지에 수많은 료양소들이 개건되고있다. 평양시 중심부의 창건거리들 비롯하여 조선의 도시와 농촌들에 날로 인민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인민극장, 플라네티움극장, 류경원 등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자들이 편이 건설되어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생활조건들이 완비되고있다라고 보도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세상이 없는 나라이다, 착취와 민중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되고 세상이 없어진 조선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족은 전적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복리증

진에 돌려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국가로부터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고 소개하였다.

체코신문 《할로 노비니》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대기범비학계 전문가들에 대하여 사적이고 학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조선에는 국호로부터 국가 및 지방정권기관, 무력, 보안기관, 각종 보건기관들과 명예칭호들 보곤 그 나라의 꽃에 일떠서 건축물들의 명칭들이 이르러가지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다. 수도 평양의 중심부 명당자리인 남산재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건축물의 이름도 다름 아닌 인민대학당이다.

아름다운 불통각수에는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즐기기 위한 인민회화정원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현대적인 인민극장이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가에 건설된 유원지의 이름도 다름 아닌 플라네티움유원지이다.》

남산을 거닐며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는 우리 문화공화국의 모습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는 한시도 생각할수 없다.

쿠웨이트민중사업집 국제관계책임자는 인민사상을 현물로 지니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설계되고 집행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겨주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적 품모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후아라 까르야》는 김정은각하께서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고계시는것이 세계를 격동시키고있고 하면서 하대어 어떻게 되어 김정은각하께서 인민들로부터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에서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에서 찾아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평하였다.

평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된 혼연일체를 이루었기에 우리의 친인근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견뎌나타 짓부셔버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편대성협회 위원장은 조선식사회주의의 불멸성의 요인에 대하여 조선의 국력이 강해진다는 수평,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다때문이다. 평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평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있다. 조선인민처럼 평도자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열렬히 호모하며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평

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평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평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평도자에게 조선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평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셔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뽐내고 있다. 조선인민의 투쟁정신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 인민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있다.》

메히코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알베르 토 아야 구에레레스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은 정치사상구조, 군사구조로 위용 떨치고있다. 그의 현명하고 평도자에 조선인민공화국의 위기는 풀림되어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호모하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어있다. 뜨거운 애국주의정신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닌 인민에게 오직 평도자와 인민이 넘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은 확신하고있다.

베루신문 《악셔는 나제오날리 스마》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베노사 갈라라는 자기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조선》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호성정신으로 총동원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한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조선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은 확신하고있다.

베루신문 《악셔는 나제오날리 스마》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베노사 갈라라는 자기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조선》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호성정신으로 총동원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한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조선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은 확신하고있다.

베루신문 《악셔는 나제오날리 스마》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베노사 갈라라는 자기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조선》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호성정신으로 총동원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한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조선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은 확신하고있다.

베루신문 《악셔는 나제오날리 스마》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베노사 갈라라는 자기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조선》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호성정신으로 총동원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한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조선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은 확신하고있다.

베루신문 《악셔는 나제오날리 스마》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베노사 갈라라는 자기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조선》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호성정신으로 총동원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셰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고 한다.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이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조선에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라 되어 언제나 승리를 떨쳐온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앞으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온 세

## 조선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제18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반향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신심과 활력에 넉넉 모습을 보고 제18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외국인들이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연해연방상품회의소 소장 스타루빈찌코 보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번 조선의 경제적 잠재력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지난해 가을에 있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여 조선의

## 련이여 일떠서고있는 조선의 과학자거리

기네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 진행

여세대에 달하는 다층상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16개의 장소에 꾸러진 공원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이루어진 현대적인 거리이다.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살림방, 부엌, 냉방기구 등은 훌륭한 환경에서 과학연구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 범죄의 증거물은 문화유산이 될수 없다

민중신문을 제출한다 있다.

이른바 문화유산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의 자취, 강제노동과 대량학살의 흔적들을 가리우고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내의를 탄탄대로 돌려보자는데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간혹한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여 과거 일제의 죄악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유물, 시설들에 비판대기자를 띄워 과거사문제를 어둠속에 묻어 버려버리자는 것이다. 저들의 침략과 범죄사실들을 《문화유산》이라는 《침묵》으로 분할하여 극구 찬양하고 선전함으로써 모든 일본인들에게 국주의독소를 불어넣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일단 세계문화유산등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면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침략역사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정당화해나갈것이며 국군의 기록 보다 미천함이 내달릴것이다.

바로 여기에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이 있다.

오늘날 일본의 역사외교, 역사부정행위는 극히 엄청난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당국자 자신이 일본군정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가하면 폐망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발표하게 되는 당회에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넣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

일제의 폐망 70년이 되는 올해는 일본에 있어서 과거사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개민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계속 국군화, 우경화에 갈지 하느냐 하는 심각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만약 일본이 지금과 같이 과거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군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다면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과거의 죄악과 폐망후 70년 역사를 성근하게 반성해보는것이 바로 일본이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일본의 행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리 현 도

## 그 어떤 휘방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정치군사적인 위협공갈과 압박, 경제제재에 한장외에 미칠수없고 있다. 우리 특이약담을 퍼붓고있는것이 우리의 병진로선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핵을 포기하여야 대화도 있고 조미관계개선도 있다느니 뉘나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주체 미국대사관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조선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관계를 풀것이라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부총 6차회담을 사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전략으로 묘사하면서 비핵화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주시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 우리가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말하자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때 대한 우리의 전략적로선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지만 그것은 전쟁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우리에게서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평화》, 《번영》이니 하는 나팔들은 저주와 선군의 길로 향할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을 유린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제책에 불과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국이 구애를 가르치지 않아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창조적인 우리 시의 혁명적요구이며 대미결핵을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필승의 만능보검이다. 이것은 자위적책무를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

## 부정부패와의 투쟁 호소

첼레데통령 미첼레 바벨레프가 1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부정부패는 어느 개인이나 기업가의 명예훼손문제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만든다

## 서방의 분별책동 비난

이란부대통령이 5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분별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이슬람교나라들에 분립주의를 류포시켜 이 나라들을 소규모국가

## 사회적정보와 발전을 위하여

발전소건설 계획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전력 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발전능력이 200만kW에 달하는 발전소건설 착공식이 다음달 중부자바주에서 진행되겠다.

정부는 앞으로 전력생산에 큰 힘을 넣어 2019년까지 전국 전력부위에 96%의 전기화율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라 지리 마련

쿠바에서 최근 장애인들에게 일터와 취미해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 미국의 심각한 인권실태 규탄

로씨야외무성이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실태를 비난하였다. 성명은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총회 회의에서 미국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개관하는데 전향 판을 들리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위해 아홉가지에 대해 주장하였다.

특히 주권들을 상대로 한 미국경찰들의 폭력과 인종차별적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성명은 팔리모시와 푸구스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일어난 대중적인 시위들이 이를 증명해주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저들의 인권문제부러 시급히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한편 제네바주체 로씨야대표 알렉세이 콜리차예프가 최근 미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를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향 판을 들리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위해 아홉가지에 대해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경찰들의 전향과 관련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인 모순을 인정하면 판판나 모기지갑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파스톤은 미국이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칠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향의 시위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제만스콘전앞에서 13일 당국의 인종차별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제만스가 지난 3월에 적수공인의 흑인청년을 총으로 무장한 시위자들에 의해 무장결투를 벌이면서 18명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였다.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행위에 항의하여 시위

## 그 어떤 휘방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정치군사적인 위협공갈과 압박, 경제제재에 한장외에 미칠수없고 있다. 우리 특이약담을 퍼붓고있는것이 우리의 병진로선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핵을 포기하여야 대화도 있고 조미관계개선도 있다느니 뉘나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주체 미국대사관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조선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관계를 풀것이라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부총 6차회담을 사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전략으로 묘사하면서 비핵화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주시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 우리가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말하자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때 대한 우리의 전략적로선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지만 그것은 전쟁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우리에게서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평화》, 《번영》이니 하는 나팔들은 저주와 선군의 길로 향할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을 유린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제책에 불과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국이 구애를 가르치지 않아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창조적인 우리 시의 혁명적요구이며 대미결핵을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필승의 만능보검이다. 이것은 자위적책무를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

## 그 어떤 휘방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정치군사적인 위협공갈과 압박, 경제제재에 한장외에 미칠수없고 있다. 우리 특이약담을 퍼붓고있는것이 우리의 병진로선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핵을 포기하여야 대화도 있고 조미관계개선도 있다느니 뉘나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주체 미국대사관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조선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관계를 풀것이라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부총 6차회담을 사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전략으로 묘사하면서 비핵화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주시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 우리가 더욱 무거운 압박에 직면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말하자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때 대한 우리의 전략적로선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마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지만 그것은 전쟁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우리에게서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평화》, 《번영》이니 하는 나팔들은 저주와 선군의 길로 향할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을 유린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제책에 불과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국이 구애를 가르치지 않아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창조적인 우리 시의 혁명적요구이며 대미결핵을 승리만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필승의 만능보검이다. 이것은 자위적책무를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